

2013학년도 영남대학교 입학사정관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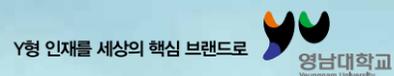
영남대학교는 인성과 지성을 바탕으로 창의성과 진취성을 겸비하여
세계화와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나갈 'Y형 인재'를 배출합니다



Y형 인재 | 영남대학교는 인성과 지성을 바탕으로 창의성과 진취성을 겸비하여
세계화와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나갈 'Y형 인재'를 배출합니다

패기를 키웁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휴전선을 따라 155마일. 영남대 학생들은 국토순례대장정을 통해 도전정신을 기르고 강의실에서는 배울 수 없는 패기를 배웁니다. 이것이 세상의 인재와 영남대학교가 키우는 Y형인재의 차이! 영남대학교는 167개 프로그램을 통해 인성, 창의성, 진취성,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시대의 리더, Y형인재를 키워냅니다.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선발 프로젝트, 입학사정관제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백승대 교수입니다.

저는 교수사정관으로서 여러분에게 영남대학교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한 안내와 격려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영남대학교는 2010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실시해 왔습니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중심인 글로벌 인재 전형은 2010학년도 70명, 2011학년도 50명, 2012학년도 75명을 모집했습니다. 특히 2012학년도 글로벌 인재전형에서는 학생부 내신성적 등급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자기만의 특색있는 인재를 뽑고자 하였습니다.

영남대학교가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통해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입니다. 영남대학교는 2009년부터 산업사회가 요구하던 X형 인재가 아닌 지식기반사회에 부합하는 Y형 인재를 길러내는 데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Y형 인재란 인성을 바탕으로 창의성과 진취성을 갖춘 인재를 말합니다. 초고속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가 처한 상황에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간이야말로 성공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영남대학교는 입학사정관제 전형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 학내외 활동,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 학생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지, 그리고 따뜻한 인간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학년도 글로벌 인재전형에서도 비록 학생부 내신성적은 낮지만 다양한 학내외 활동을 통해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준 수험생이 선발되기도 했습니다. 그 학생은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유엔협회에서 카자흐스탄 대사로 역할하면서 최우수대상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남대학교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통해 선발한 신입생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Y형 인재로 우뚝 서게 하고자 합니다. Y형 명품인재 교실이나 1+1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법을 터득하게 하고, 학습법 연구회 활동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면서도 따뜻한 인간적 감수성과 진취성을 길러줄 수 있는 국내외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과 교류를 통해 상호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Buddy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Window to the World와 같은 특별한 미션을 수행하는 해외배낭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잠재력이 큰 입학사정관제 전형 신입생들에게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Y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영남대학교는 결코 여러분을 배반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를 열망하는 수험생들은 고등학교 3년을 멋지게 생활하시고 그 경험과 기록으로 영남대학교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지원하고 합격함으로써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지도자로 성장해 나가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입학사정관제에서 추구하는 인재상

Y형인재

- 산업사회의 정형화·표준화된 인재가 아니라, 인성을 바탕으로 창의성과 진취성, 지성과 야성을 겸비한 인재
- 지식과 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
-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난 인재

인성

-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
- 품격있는 행동
- 글로벌 교양을 갖춘 인재양성

창의성

- 문제파악과 해결 능력
- 지식과 정보의 수집분석가공능력
-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전문성

- 기본을 충실히 하는 인재
- 국제화 역량증진

진취성

- Global 역량
- 진취적 리더쉽과 조직 융화력
- Communication Skill



인문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계열)는 어떤학부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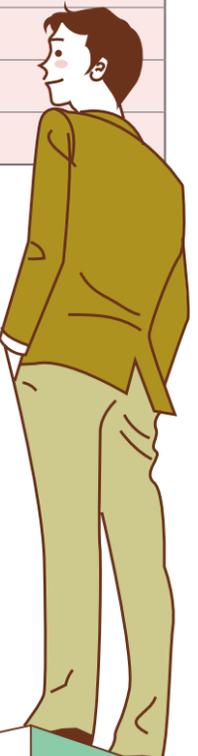
인문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계열)는 특정 전공 없이 입학한 소속 학생들이 1년 동안 전담 학사지도교수와 함께 체계적인 진로탐색 과정을 거친 후, 자신의 적성과 성격에 가장 적합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글로벌 리더로 양성함을 그 목표로 한다.

글로벌인재전형 2학년 진학시 지원 가능 학부(과)

1학년	2학년	
	대 학	선택 가능 학부(과), 전공
인문자율전공학부 (인문·사회계열)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중국언어문화학부(중어중문, 중국어통번역), 일어일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철학과, 국사학과, 사학과, 문화인류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언론정보학과
	정치행정대학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지역및복지행정학과
	상경대학	경제금융학부, 경영학부, 국제통상학부
	자연자원대학	식품자원경제학과

입학 후 프로그램

1. 입학사정관제 신입생 발표회
2. 신입생·재학생 멘티·멘토 연결
 - 선후배 동기간의 유대관계 형성
 - 대학생활의 활력 제공
 - 꾸준한 자기개발의 기회
3. 글로벌인재를 위한 전담 학사지도교수 배정으로 체계적인 진로 탐색
4. Y형 인재 육성을 위한 특강
 - Y형 인재로 거듭나기
 - 창의적 학습, 어떻게 가능한가?
 - 학습전략을 알면 공부에 보인다
 - 인성·창의성·진취성 관련 특강
5. 학업지원 프로그램
 - Lead up, 학습법 연구회
 - Y형 명품인재 양성교실
 - 학습법 공개강의 : 목요테마스쿨 운영
 - 방학중 학습법 워크숍 실시
6. 학업 상담·멘토링 실시
 - 개인별 맞춤형 학습코칭 1+1=3
 - 창의적 학습역량 검사 및 상담



입학사정관제전형 주요 사항 안내

입학사정관제전형 주요 변경사항

★ 2013학년도 수시모집 전형별 중복지원 확대

글로벌인재전형, 일반학생전형, 학교생활기록부성적우수자전형 간에는 모집단위의 동일여부와 관계없이 2개 전형 지원 가능

★ 제출서류 중 자기소개서 항목 간소화

6개 항목 → 3개 항목

글로벌인재전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대 학	계 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기초교육	인문·사회	인문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계열)	75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있는 자
- 최저학력기준 : 면접고사 만점의 60% 이상 취득

제출서류

- 입학원서(인터넷 원서접수)
- 학교생활기록부(인터넷 원서접수 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활용에 동의한 자는 제외)
- 자기소개서(인터넷 원서접수 시 온라인으로 입력)
- 증빙자료(해당자)

전형방법

전형단계	사정비율	전형요소별 성적반영 점수 및 비율		
		서류전형 성적	면접고사 성적	총 점
1단계	200%	320점 (100%)	-	320점 (100%)
2단계	100%	320점 (40%)	480점 (60%)	800점 (100%)

서류전형

전형요소	반영점수 및 비율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자기소개서	증빙자료
서류전형	320점(40%)	112점(14%)		208점(26%)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및 증빙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성, 창의성, 진취성, 전문성의 평가영역으로 나누어서 평가

면접고사

전형요소	반영점수 및 비율	심층면접 I		심층면접 II	
		인성	창의성	진취성	전문성
면접고사	480점(60%)	192점(24%)	96점(12%)	96점(12%)	96점(12%)

※ 심층면접 I : 공통주제 및 제출 서류의 특이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형식

※ 심층면접 II : 면접문항지를 입실 전 15분간 숙지한 후 면접문항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형식

기회균형전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사회, 자연	전 모집단위 (일부 모집단위 제외)	50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의 자녀
- 최저학력기준 : 면접고사 만점의 60% 이상 취득

제출서류

- 입학원서(인터넷 원서접수)
- 학교생활기록부(인터넷 원서접수 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활용에 동의한 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자기소개서(인터넷 원서접수 시 온라인으로 입력)
- 증빙자료(해당자)

전형방법

전형요소별 성적반영 점수 및 비율		
서류전형 성적	면접고사 성적	총 점
320점 (40%)	480점 (60%)	800점 (100%)

서류전형

전형요소	반영점수 및 비율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자기소개서	증빙자료
서류전형	320점(40%)	112점(14%)		208점(26%)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및 증빙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성, 창의성, 진취성, 전문성의 평가영역으로 나누어서 평가

면접고사 - 수시모집 일반학생전형의 면접고사 형식과 동일함

※ 최종 확정된 내용은 원서접수 전에 '2013학년도 수시모집 신입생 모집요강' 또는 '입학홈페이지(<http://enter.yu.ac.kr>)'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 (견본)

1. 지원자 인적 사항

지 원 사 항	대학	학부(과)
수험 번호	전 형 유 형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2. 자기소개서 관련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기술하여야 합니다.
2. 자기소개서는 서류전형과 면접고사에서 기재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기재사항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자기소개서 내용은 입학전형 및 입학 후 학생지도 자료로만 활용하며, 비공개 문서로 관리합니다.
4. 자기소개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① [자기소개서]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제출 기간 중에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 ② [자기소개서]의 각 항목은 이 서식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작성해야 합니다. (각 항목 당 1,200자 이내, 바탕체, 11pt)
 - ③ 내용에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의 기재를 금합니다.
 - ④ 자기소개서 내용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 관한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 ⑤ 증빙자료 제출시 증빙자료 상단에 본인의 수험번호와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기 바랍니다.

3. 지원자 확인 서약

1. 본인은 이 자기소개서를 사실에 입각하여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2. 본인은 이 자기소개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대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 합격 취소, 입학허가 취소 및 향후 지원 자격 제한 등의 귀 대학교의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은 자기소개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귀 대학교가 확인을 요청할 경우 협조하겠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하는 전형이 어떤 유형인지 고려하여 작성하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각 항목은 1,200자(띄어쓰기 포함) 이내로 자유롭게 서술하면 됩니다.

1. 지원 동기와 미래의 꿈,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을 서술하시오.
 ※ 평가요소 : 진취성, 창의성, 전문성

2. 교내 · 외의 다양한 활동(독서활동 포함)과 자기주도적인 학습경험 또는 창의적 학습경험을 서술하시오.
 ※ 평가요소 : 창의성, 전문성, 진취성

3. 가정 및 학교 내에서, 그리고 학교 밖의 단체 활동에서 본인이 수행한 역할 및 활동 내용, 사회적 관계 맺기 경험을 서술하시오.
 ※ 평가요소 : 인성, 진취성, 창의성

※ 상기 양식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서접수 전에 '2013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요강' 또는 '입학홈페이지(<http://enter.yu.ac.kr>)' 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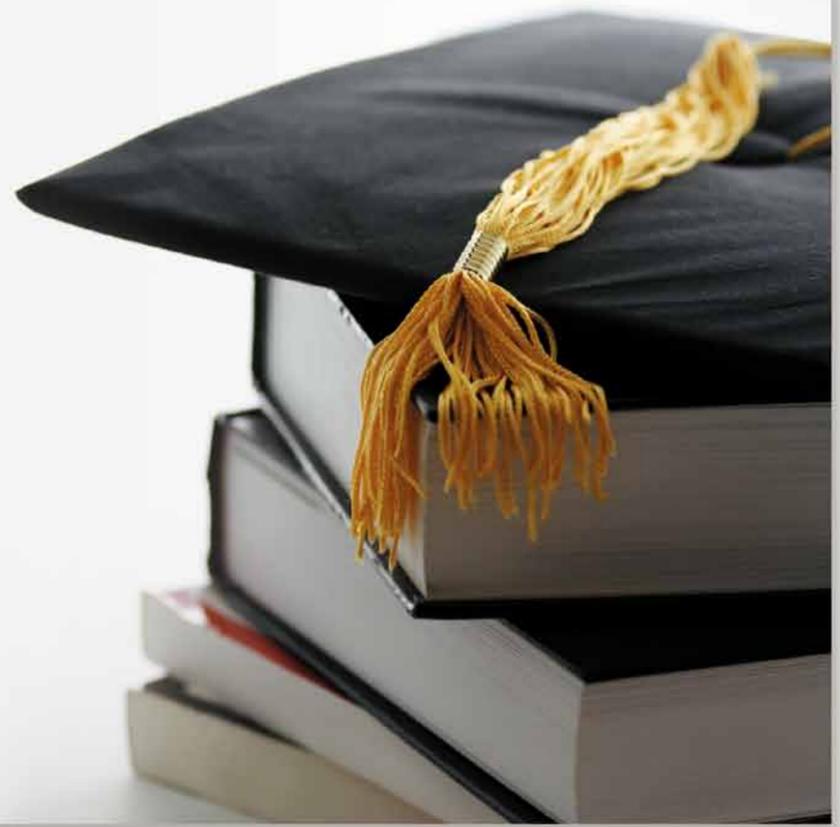
면접 기출문제

2012학년도 수시 글로벌인재전형 집단면접 문항지

■ 다음은 청소년에 대한 글입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청소년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지 자신의 의견을 말해 보시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어느 세대도 누려보지 못한 풍요 속에서 살고 있다. 덕분에 많은 청소년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즐거운 십대시절을 떠나보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뚜렷한 계획도 없이 무작정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거나, 고민스러운 직업 결정을 유예하거나, 십대시절의 향수를 달래 줄 집단에 대한 강한 귀속감을 갈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 결과 십대에 머물고 싶어 발버둥치는 초보어른들, 즉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 멜 레빈, 『내 아이의 스무 살(소소, 2005)』, 37-8쪽에서 재정리함.



2012학년도 수시 글로벌인재전형 심층면접 문항지

■ 다음에 인용된 글을 읽고 주어진 질문에 대해 우리말로 답해 보시오.

‘악마의 풀’과 ‘옥수수 추장’

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B상고에 응시했지만 낙방하고 U농고로 진학하게 되었다. 나는 좋아하던 여학생이 다니던 교회에 등록까지 했지만, 그 여학생의 관심을 얻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때 얻은 신앙은 옥수수를 연구할 때 겪게 되는 어려운 고비를 극복하는 힘이 돼주었다. 대학졸업 후 농협의 입사 시험을 봤지만 또 떨어졌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 입사하게 되었다. 당시 농촌진흥청의 가장 중요한 직책은 쌀 연구원이었는데, 나는 그 자리를 얻지 못하고 밀려나 옥수수 연구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 덕에 나는 옥수수 연구로 1인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고, 미국 정부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유학을 다녀왔다.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후 나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 마침내 뛰어난 품종의 옥수수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1979년 나에게 특별한 임무가 맡겨졌다. 아프리카인들을 위해 새로운 품종의 옥수수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아프리카로 향했다. 당시 아프리카에는 ‘악마의 풀’ (스트라이가)이 옥수수밭을 폐허로 만들고 있었다. 그 잡초는 완전히 방제하려고 하면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뽑아 없애려고 하면 더욱 번성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서구학자들은 그 풀을 없애려고 100년에 걸쳐 연구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처음에는 나 역시 그 풀을 없애는 연구에 몰두했다. 그러나 조금 지나자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그래서 나는 방향을 바꿨다. 나는 악마의 풀과 공생할 수 있는 옥수수 품종을 개발하기로 마음먹었다. 내 계획을 전해들은 서구학자들은 나를 미친놈으로 취급했다. 하지만 외롭고 어려운 연구 끝에 나는 결국 악마의 풀과 공생하는 옥수수 품종을 개발해냈다. 그와 더불어 아프리카의 식량 문제는 삼시간에 해결되었다. 그 공로로 나는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 ‘옥수수 추장’으로 추대되는 명예를 누리게 되었다.

- 『내 인생의 결정적 순간(이미지박스, 2009)』, 169-179쪽을 재정리함.

문제 가: According to the passage, the author made every effort to achieve his goal. What was the special task assigned to him, and how could he have the capabilities to do it?

문제 나: The author is talking about so-called "the Devil's grass(악마의 풀)" as an example of the adversity he faced when growing corn in Africa. Tell us what personal adversities you have faced, and what you have learned from overcoming those difficulties?

문제 다: Like the author, everyone has a dream. What is your dream, and what kind of self-directed learning do you plan to fulfill it? Self-directed learning refers to the learning method in which an individual learner takes the initiative in learning.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임가인
(2010학년도 글로벌인재전형 합격자 / 현. 경영학부 3학년)



여러분들은 대학교 생활이라는 즐거운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의 걱정거리는, 이 많은 시간을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것입니다. 대학교의 신입생 된 일상은 나의 결정에 따라 흘러갑니다. 교복을 입던 고등학교 생활을 벗어나, 하루의 계획에 맞추어 예쁜 옷을 입어야 하는 것, 형광펜 줄을 그으며 먹던 식단표가 아닌 가격이 붙어 있는 메뉴를 선택하기 까지 모든 것이 선택에 따라 생활 됩니다. 많아진 고민 속에서의 스트레스보다는, 선택 속에서의 즐거움을 찾아 앞으로의 학교생활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학생에게 있어서는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큰 재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재산을 누가 주어도 물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스스로가 자신의 길을 이야기 하며 찾아가는 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 심심한 대학생활을 이겨내지 못하고 저는 준비 없이 교문 옆의 큰 건물, 국제처를 찾아 갔습니다. 영어실력이 부족하던 것을 이유하여 참여할 만한 활동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번의 용기로 참여 신청기간에 맞춰 낸 서류들은 떨리는 기대 속에서 합격이 되었고, **세계 처음으로 기회가 주어진 것은 OPP(Outbound Pilot Program)라는 해외 어학연수 교육이었습니다.** 학기 중의 국내 교육 준비과정 시작에서 부터 국외 교육 지원까지, 외국 유학을 한 달간 다녀 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 속에서의 인연들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태도를 갖춘다면 성적을 넘어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용기도 생겼습니다.

한 번의 시작이 힘들 뿐 학교 홈페이지의 학사안내 링크에서 **버디(Buddy)활동** 지원자 모집 공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교환학생과 우리학교 학생들이 상호간의 도움이 되는 학교생활을 위해 매학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면접을 통하여 적합한 버디를 맺어주는 과정이 있으나, 자신의 외국어 실력에 연연하지 않고 도전한다면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던 것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기 위한 활동에는 또, **영남대 다문화 연구소의 다문화 멘토링(Mento)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에 맞추어 온라인으로 매일 만날 수 있는 학습봉사 활동입니다. 초등학교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도움 없이 그저 봉사라고 생각하였지만,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내가 선생님이 되어 학생에게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닌, 나를 보고 배우는 멘터를 통하여 나를 알게 되는 과정 또한 배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대학생활 속에서 나에게 적합한 학습법을 찾아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교육 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 시스템입니다. 천마 아트센터 속 타워홀에서 진행되는 활동은 **학습법 연구회, Y형 명품인재 교실, 1+1 코칭 상담** 까지 전반적인 학습 과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법 연구회는 친구와 팀원이 되어 서로의 학습과정을 이야기 하며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습법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또한 Y형 명품인재 교실에서는 효율적인 학습법을 배우는 알찬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잘못 해오던 나의 학습과정들을 생각하며, 이후 1+1=3 코칭을 신청하여 선생님과 상담하며 나의 전반적인 학교생활과 학습과정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저 학교에 앉아 시험공부, 취업에만 신경 써야 하는 대학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에서 벗어나 주위를 둘러보면, 더 중요한 공부를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대학생의 신분으로 움직인 폭넓은 활동들은 소중한 추억과 인연, 기회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생각을 가지다 보면 어느새 어떤 경우에서도 순간을 즐길 수 있는 사회인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Y형 인재로 학교생활의 보람

황은승 (2010학년도 글로벌인재전형 합격자 / 현. 언론정보학과 3학년)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제 성적이 아닌 저의 숨겨진 능력을 인정받아 영남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 전부터 Y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 **글로벌 캠프**를 개최하여 우리들을 멋지게 인도하여 주었고요. 작은 장학금도 받아 저를 뭔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게 해 주었어요. 하지만 영남대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은 분명 남달랐겠지만, 입학 후에 저는 남들과 다를 바 없는 그냥 10학년 새내기였어요. 이렇게 평범한 학교생활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렸어요.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생활을 하며 가장 도움이 되었던 말이에요. 대학생활은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나하나 채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활을 보내며 많은 일을 해보겠다고 다짐했어요. 제가 소속한 자율전공학부의 집행부에 가입하여 과의 행사와 많은 일들을 진행 해 보았어요. **탐험프로젝트**라는 것을 통해 친구들과 예산을 짜고 계획을 세워 우리나라를 여행하여 보았어요. 그 탐험한 내용을 가지고 PT경쟁도 해보았어요. 또 저는 영상에 관련된 것에 관심이 많아서 **다큐나 UCC를 제작하여 공모전입상**도 해보았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항상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진 않았지만 이런 많은 일들을 해보며 고등학생 때와는 다른 저를 찾고 진취적인 대학생활을 한 것 같아서 뿌듯한 대학생활이었어요.



입학사정관제 공모전 입상 사례

저는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1회 입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애착이 많았고, 학교에서도 입학사정관제를 좀 더 학생들에게 좋은 결과로 내보일지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입학사정관제 학생 TF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입학사정관제로 함께 입학한 동기들과 도전해보게 되었어요. 입학사정관제가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성적이 조금 아쉽거나 학교생활에 충실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많이들 지원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성적표 보다는 내가 가진 끼와 재능을 더 보여줄 방법을 찾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여러 입학방법 중의 하나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제출하였더니 작지만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이를 통해 대학교육협의회에서도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많은 제도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조언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성적표의 숫자보다는 여러분을 보여줄 좀 더 특별한 방법을 찾던 학생들이 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해요. 이것은 단시간에 똑딱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적에 얽매어서 학교에 갇혀있는 고등학생이 아닌 좀 더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학생이 되기를 바라요. 또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때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을 했는지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계기와 이를 통해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지 등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해요. 이런 활동들을 할 때에 남들이 다들 하는 것이라고 우르르 따라가기 보다는 어떤 것이 나의 특성을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을지 나에게 도움 되는 것은 어떤 것 일지 잘 생각해서 소중한 수험생 시절을 낭비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같은 학생들을 많이 봐주시는 사정관분들께서도 여러분들 같은 인재를 한눈에 알아 보실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들은 좀 더 큰 꿈과 미래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멋진 미래는 여러분들 것일 거예요. 파이팅!

생활속의 도전이 나를 바꾸다!

박현창 (2011학년도 글로벌인재전형 합격자 / 현. 경제금융학부 2학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대학교 인문자율전공학부 11학번 박현창입니다. 벌써 새로운 후배님들을 맞이한다니 설레네요. 우선, 친구들에게 입학사정관 전형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내내 좋은학교, 좋은학과에 진학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공부했을 친구들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구체적인 미래목표를 설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조금이나마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진실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제회의통역사가 되고 싶어서 반기문 UN사무총장님의 연설문을 수십,수백번을 읽고, 동화부터 시작해서 영자신문까지 영어와 관련된 서적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면접관님들께 보여드렸고, 그간에 노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단순 대학진학이 아니라 그동안 했던 일들을 되새기고, 더 나은 내모습을 찾기 위해 탐구하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원하는 학교에 입학해서 무엇보다 제 자신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 같아서 좋았고, 많은 자신감도 얻게 되었습니다. 목표한 학과를 배정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현재 원하는 전공도 선택했으며,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한 만큼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홍보할 수 있는 **영남대학교 학생홍보대사(영대사랑)**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 행사에서 노동고용부 장관님, 인천국제공항 사장님, 우리학교 총장님 등 사회 각층에 훌륭한 분들을 만나는 자리를 갖는데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설 만큼 멋진 사람이 되어야지' 생각합니다. 또 10대들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수시, 정시설명회, 입시박람회에도 참여하여 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초등학교 대학생 멘토링 활동과 매주 무료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바쁜 대학생활을 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이처럼 저는 친구들이 대학교에 들어와서 많은 경험을 했으면 합니다. 땅을 깊게 파기 위해선 먼저 땅을 넓게 파야 하듯이,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선 많은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친구들이 해야만 해서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닌,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으면 합니다. 단지 스펙에만 연연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이뤄내지 못하고, 진정으로 원해서 노력한 것들은 언젠가 인정받고, 삶에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항상 준비된 친구에게 기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즐겁고 보람찬 대학생활 시작하길 바라겠습니다.



입학사정관제 합격수기

꿈을 위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고 경험을 쌓아야...

윤다혜
(2012학년도 글로벌인재전형 합격자 / 현. 인문자율전공학부 1학년)



처음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를 위한 전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숫자로 매겨진 일률적인 성적이 아니라 학생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꿈과 열정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 제도는 저에게 적합하였습니다.

영남대학교 글로벌 인재(입학 사정관 전형)는 주어진 지식을 단순히 습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타 대학에 모범이 되는 입학사정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제도를 염두해서 하는 활동들이 아니라 저의 의지와 열정으로 교내에서 주최하는 행사들은 대부분 참여하였고 최선을 다해 행사에 주어진 과제들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이라는 주제로 나의 주장 발표 대회에서 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 필요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꿈.반.이(책쓰기 동아리)에서 활동한 것은 인생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자신의 꿈을 연관지어 이야기를 만드는 작업을 하며 끊임없는 성찰과 고민 끝에 자아가 성숙하였고 심리 상담 교사라는 꿈을 구체화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국 연꿈술사 - 그에게서 나를 만나다(2011.5.25)를 출판하였습니다. 책쓰기 활동은 이후 글쓰기 실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어 백일장, 소감문 쓰기 대회에서 수상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3년 동안 학급의 간부로서 선거관리위원, 고입 박람회 대표단으로 활동하며 리더십을 키웠습니다. 이외에도 교외에서 하는 이름뿐인 활동들보다는 교내에서의 활동에 충실하여 더욱 알찬 고교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학업에 투자되는 시간이 줄어들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스스로에 대한 열정과 대인관계, 폭넓은 시야를 갖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목표하는 바가 있었고, 그 꿈과 관련된 활동이 있다면 학업에 구애 받지 않고 도전하고,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어서 관련 자료들을 모아두고 제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 포트폴리오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되었고 많은 활동을 입증할 증빙자료로 쓰이며 사정관님들께 더욱 신빙성있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자율 전공 학과에서 다양한 대외 활동과 더불어 심리학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며 심리 상담 교사라는 진로를 이어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교시절 가졌던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을 이어서 이주여성의 상담을 돕는 상담센터 봉사활동을 하고 학급간부로 활동했던 경험을 되살려 소외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봉사를 할 계획입니다. 상담교사로서의 자질도 키워 학생들에게 꿈과 열정을 심어줄 수 있는 따뜻한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훗날 제 삶의 최종목표는 펜실베이니아 긍정 심리센터에서 현재 우울증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심리 치유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곳에 참가하여 전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울증을 겪는 학생들을 치유해주고 싶습니다. 제 계획이 어려운 일이라고 여겨질지라도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제가 정한 목표를 향해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입학사정관제도에 지원하려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진진한 고민은 필수적이고 진로에 맞는 활동들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부딪히고 모든 활동들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입학사정관에 지원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여기에 꿈에 대한 열정과 포부만 더한다면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은 입학사정관제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팔을 뻗은 기상을 표현 하는 'Y형 인재'에 부합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꿈을 향해 노력한다면...

김명주 (2012학년도 글로벌인재전형 합격자 / 현. 인문자율전공학부 1학년)



저는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훌륭한 분도, 입사관에 도전하는 학생을 평가하는 사정관님도, 이 자리에 계시는 멋진 여러분들도 아니지만, 오직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했다는 경험 하나로 조심스레 제 생각을 꺼내어 봅니다. 입학사정관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전형을 찾고, 그 전형에 맞는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스스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의 꿈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시기에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정책 연구원이지만 그 당시는 바로 영천시장. 저의 꿈에 대해 스스로, 진지하게 고민하니 저희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적은 돈이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선뜻 내놓으시고, 지역행사에 참여해 일손을 도와드리는 등 가정만을 위한 삶이 아닌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살아오시던 부모님을 보며 지역사회를 위해 제 인생을 보내고 싶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가장 가까워서, 지역사회 발전에 가장 큰 공헌을 하는 영천시장이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천시장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더 큰 세상에서 저를 시험하고, 제 그릇을 파악하기 위해 점촌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이 점촌고등학교에서 저의 수준을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중학교 200여명중 11등으로 졸업한 저는, 점촌고등학교 학력고사에서 178명중 177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천시라는 지자체를 맡아 나가야 될 사람인데.. 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여 공부해서, 3학년 2학기에는 저희 학교의 반 정도의 수준으로 졸업했습니다.

또한, 1학년 때 찾아온 학생부회장 선거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래의 영천시장 선거를 치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준 높은 점교생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현실 가능한 공약, 진지한 연설을 준비해 학연 지연 혈연 없이 당당히 당선되었습니다.

학생부회장을 물러나고 학생회장 선거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부회장과는 달랐습니다. 학생부회장을 지내다 보니 학생회는 유명무실, 학생들을 위해 진정으로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은 거창하지만 현실개혁을 위해 출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시를 맡고 있는 시장이 그 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공식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부 개편, 면접을 통한 학생회 임원 선출, 학생회 회의 형식 개편, 캠페인 추진 등을 공약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부끄럽지만 많은 칭찬과 격려 속에 회장에서 물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속에 영천이 아니라 더 큰 영천을 만드는 영천시장이 되기 위해, 못하는 영어로 연극을 하는 동아리에 들어가 외국의 드라마를 보고, 눈물도 흘리며, 문화를 느꼈습니다. 더불어 도에서 상을 받았고,

모의UN대회라는 곳에 출전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표가 되어 대변한다는 것은, 한 지자체의 대표자가 될 저에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카자흐스탄의 대표로, 무역불균형 해소, 유엔이 추진하는 새천년 개발계획 조기이행이라는 주제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설득하여 최우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학생회장 100인이 모인 곳에서 전체 회장을 뽑는 경선에도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선거방식이 아닌, 100명을 5조로 나누고 조안에서 경선하여 조 대표를 뽑고, 조 대표를 필두로, 5조가 겨루어 회장을 선출하는 모의선거! 때문이었습니다. '저만의 성취가 아닌 조 개개인의 성취를 위해' 라는 슬로건으로 조 대표가 되었고, 진지하고, 믿음직한 모습과, 지방 후속모임을 활성화 하겠다는 공약으로 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꿈이 무엇인가 스스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이러한 도전들이 영남대학교의 커다란 문을 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늘 부족한 저이지만, 꿈을 스스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들, 그 꿈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 온 저 같은 분들에게 영남대학교라는 큰 기회의 문의 열쇠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저와, 글로벌 인재전형으로 입학한 분들은 영남대학교를 저버리지 않고, 영남대학교에서 더 큰 뿔박질로 세상을 놀래 켜 드릴 것입니다.